

영농철 맞아 찾아가는 농업서비스 추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2개반 8명 농기계 수리반구성 ... 총 250회 실시 계획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개반 8명으로 수리반을 구성해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업

서비스를 실천하고, 자가정비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경영지원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동순회 50회, 정기순회 200회 등 총 25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기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

3~5월초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중점수리 △5~6월 이앙기 기동수리반 운영 △7~11월 정기순회수리와 수확기 및 방제기 기동수리 등이다.

또한 농기계작업 고장신고시 즉각 출동수리로 농기계 민원을

해결,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방법을 사전교육한 후 직접 실습하게 해 자가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250회의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추진해 연간 8억원의 농가간접 소득과

함께 영농기 농기계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행정서비스를 전개해 농업인들이 농기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기상특보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고성군 속초기상대 통해 700건 발송계획 오호 2리 장영실 이장 읍면간담회서 건의

고성지역 어민들은 오는 5월부터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와 해제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고성군이 속초기상대에 예산을 지원해 선주 등 어민 700여명에게 기상특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배를 가진 선주와 선장 등 어민 700여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기상특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통신사 등을 상대로 관련 비용과 서비스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기상대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해경 파출소와 어촌계장, 마을 이장 등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예산 지원이 있으면 더 많은 어민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상특보 문자메시지 발송 논의는 평소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 서온 죽왕면 오호2리 장영실 이장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장 이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죽왕면 연초순방 및 현안취급 간담회 자리에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및 해제 시 대형 선박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외 대다수 선

박들은 안 해줘서 불편하다”고 제기했다.

지난 2일 고성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장 이장은 “그동안 본인들이 직접 기상정보 131번을 눌러서 알아보느라고 상당히 불편했었다”며 “이제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준다니 어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죽왕수협과 고성수협에 신청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5월부터는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4일 오전 11시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린코리아 등 4대 중점사업 펼쳐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정기총회 개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회장 이진명)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지회사무실에서 대의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 사업계획 세입세출안을 의결했다.

사업계획 세입세출안을 의결했다.

또 올 한해 저탄소 녹색생활화를 중점으로 그린코리아, 스마트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 등 새마을운동 4대 중점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승근 기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681-1666~7 / 팩스 681-1668 / 이메일 goseongnews@hanmail.net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현대건설(00072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이집트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제는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사태가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석유산유국들의 정세 불안으로 최근 국제 유가는 치솟았고 물가 불안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증시도 연일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지수 방어에 전개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외국인의 본격적인 현물 매수 유입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기관 매수 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2월 들어 1조 6천억 정도가 유입된 가운데 기관은 저가매수 및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말을 앞둔 상황임에도 지난 금요일 증시는 1940선을 저점으로 반등에 성

공 1963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하였다.

약 한 달 만에 2120선을 고점으로 1940까지 180포인트 가량 지수는 하락한 상황이다. 기술적 반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지난 금요일의 반등 마감은 고무적이라 하겠

다. 단기 반등을 노린 전략을 수립, 낙폭과대 종목을 1순위로 매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중동사태로 인해 지수 하락 구간에서 건설업종은 뒤서리를 맞았다. 반대로 지수 반등 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현대건설(000720)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최근 리비아 사태로 현대건설 주가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리비아 현지에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안 심리에 의한 하락이라 하겠다. 현대그룹 집안 싸움으로까지 확장되었던 채권 단 매각 문제는 현대차 그룹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제 과거 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일만 남은 것이다.

국내 주택경기도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도 해외 수주 증가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리비아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 판단된다. 74000원 전후 매수로 대응하고 69000원 손절 기준으로 대응하면 무난해 보인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